

# 불법 노점 신고 급증...붕어빵 장사들 '전전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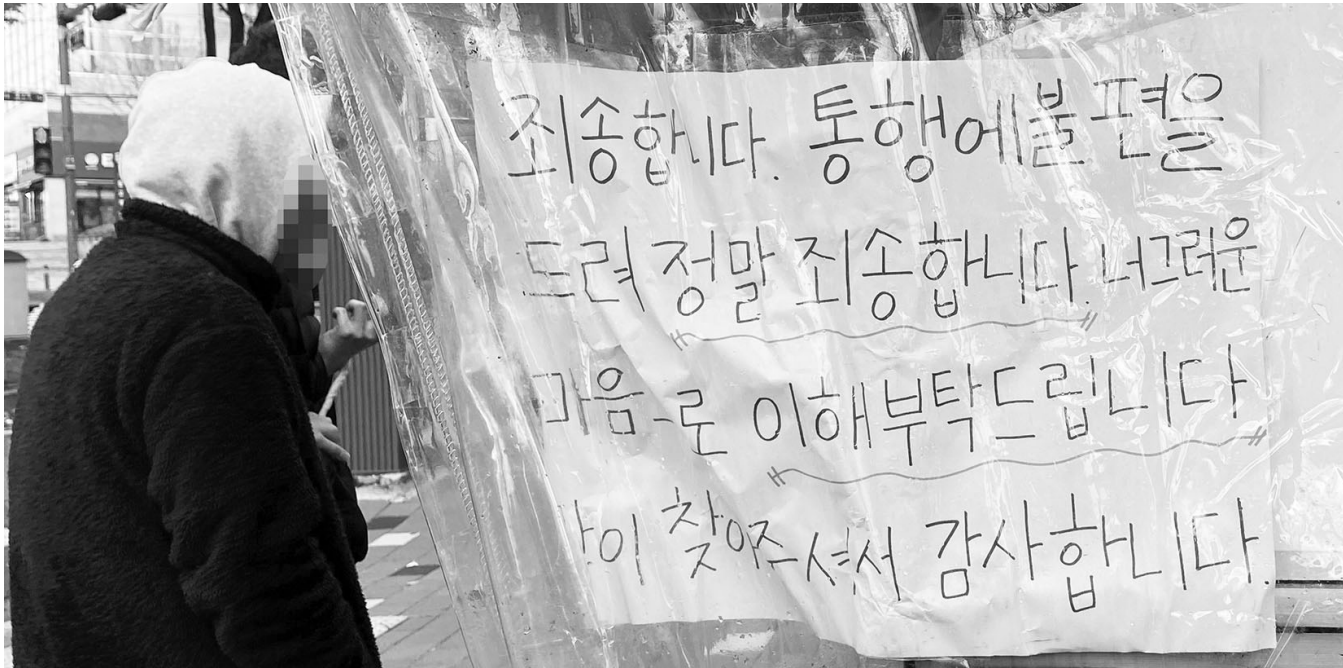
겨울철 대표간식 손님 줄 이어져 도로 무단 점용 민원 제기 잇따라 '통행 불편 죄송' 안내문 내걸어 자릿세 내고 사유지서 장사 늘어

지난달 27일 찾은 광주 동구의 한 붕어빵 노점. 광주·전남지역에 첫눈이 내리며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붕어빵을 파는 노점 앞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팔 붕어빵 2개와 슈크림 붕어빵 2개를 주문한 대학생 이유빈(22)씨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흘러내리는 붕어빵을 주문했다"며 "추운 날씨에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다 보니 생각날 때마다 들러서 사 먹곤 한다. 길거리에 설치된 붉은색 천막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보고 추운 계절이 돌아왔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원재료값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붕어빵이 여전히 겨울철 인기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붕어빵과 역세권을 합친 '붕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붕어빵 맛집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앱)과 SNS 게시물도 인기를 끌고 있다.

붕어빵의 인기는 늘고 있지만 붕어빵 노점장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붕어빵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행렬이 늘어나



지난달 27일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붕어빵 노점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장사가 잘 될수록 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아져 마냥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날 찾은 광주 남구의 한 붕어빵 노점에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7년 동안 붕어빵을 팔았다는 상인 A(53)씨는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장사하다 보면 매년 3~4번 정도 신고가

접수된다"며 "일단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신고 접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붕어빵의 인기가 오르자 민원도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광주 북구에 접수된 붕어빵 노점 신고 건수는 2021년 98건, 2022년 133건, 2023년 14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벌써 149건의 신

고 접수됐다.

동구도 올해 3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구는 66건, 남구는 15건, 광산구(호떡 노점 포함)는 245건으로 매년 신고가 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노점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붕어빵 노점 상인들은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장사를 이어간다. 이 탓에 요즘은 사유지에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거나 마트나 카페 등의 상가 내부에 자리를 잡고 붕어빵을 파는 상인도 늘었다.

A씨는 "올해는 인근 병원 측에 양해를 구해 자릿세를 지불하고 병원 앞 사유지에 자리를 잡아 장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상인들의 경우에도 불법 노점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대부분 매장 내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거나 사유지에 자릿세를 내고 장사한다. 대로변에 비해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매출이 줄었지만 그래도 신고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를 합법화하는 '노점 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광주에서는 노점을 합법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노점 주변에서 간식거리를 파는 상가 상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편이다"며 "붕어빵 노점은 대부분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서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상으로 불법이라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정성아기자

## 신안서 조업선원 3명 해상 추락... 2명 숨져

투망작업 중 구조물에 충돌 추정

신안 해상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추락한 뒤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2명이 숨졌다.

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3분께 신안 입자도 북방 약 4km 해상에서 투망 작업 중이던 16톤급 근해자망 어선 A호에서 선원 50대 A씨와 40대 B·C 씨 등 3명이 추락했다.

VHF(Very High Frequency, 초고주파 무선) 통신망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하는 동시에 인근 어선과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관계당국은 A호에서 추락한 선원 3명을 전원을 구조한 뒤 응급조치를 진행하며 무안과 목포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A씨와 B씨는 숨졌고, C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선장을 상대로 해경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투망 작업 도중 어선 구조물에 부딪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 중학교 운동부 '상습 폭행' 신고... 교육 당국 조사 착수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내에서 학교 폭력 대물림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북구 A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중학교 운동부 1학년 학생 B군이 같은 운동부 선배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사건은 B군이 최근 그의 부모에게 운동부를 탈퇴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의 추궁 끝에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답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B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

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의 부모가 B군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학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비롯해 학교폭력 조사에 착수한 결과 2학년 학생들이 자신도 지난해 선배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확대됐다.

이후 2학년생 학부모들이 모여 아이들을 추궁한 결과 지난해 A중학교를 졸업해 인근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 3명으로부터 상습 폭행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됐다.

피해 학생들은 선배들로부터 장기간 상

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한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 광주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고,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학생들과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한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운동 종목 협회 관계자는 "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안 경중에 따라 선수들에게 '출전 정지'부터 '선수 자격 박탈'까지 징계할 방침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진상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 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애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읍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복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